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03.(화) 11:00 (지면) 2026. 11. 04.(수) 조간 배포 2026. 11. 03.(화) 06:00

수산 현장의 아이디어를 성과로 이끈 '2026년 수산신지식인' 3명 선정

- '제10회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서 수여 및 우수사례 공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수산신지식인' 3명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4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회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수산신지식인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수산 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어구 개량과 양식 생산방식 개선 등 자신만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수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상자 3명 중 김남성 씨는 내수면 어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반려동물 간식인 펫푸드를 개발하고, 동결건조·저온건조 제품과 습식사료인 츄르 등 제품군을 다양화하여 내수면 어종의 새로운 활용과 소비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박진형 씨는 흰다리새우의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산 깐새우 가공과 부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필성 씨는 낙하산 줄을 활용한 어구 제작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며, 어구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어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수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온 사람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57명을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수산신지식인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정보 제공,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수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산신지식인 발굴과 육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은 '100년의 약속, 사람과 바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신지식인 인증서 수여와 우수 인재 포상 등 지난 10년간의 인재 육성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은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신지식인들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더 많은 어업인에게 전해지고,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진우 051-773-5460
		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51-773-54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